http://dx.doi.org/10.5392/JKCA.2015.15.11.550

외래 관광객의 공연 관람 의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K-entertainment Tourism by Simultaneous Logistic Equation Modeling

이민재*, 김진영**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Min-Jae Lee(sophie@khu.ac.kr)*, Jin-Young Kim(jk293@khu.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공연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공연 관광에 있어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의도와 행동 간 차이를 줄이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중 공연 관람 의도가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관람군(실제로 관람한 사람)과 잠재군(실제로 관람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람 의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태도와 지식 요인이 공연 관람 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객의 공연에 대한 지식 요인이 투입될 경우 태도 요인만 고려할 경우보다 관람군과 잠재군의 집단 간 분류 정확도가 높아져, 태도요인 뿐 만 아니라 지식요인도 관람 의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공연 관광 | 관광 콘텐츠 | K-엔터테인먼트 공연 | 의도-행동 불일치 | 로지스틱 회귀분석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gree of intention-behavior gap in the entertainment tourism. Using the sample of international visitors to South Korea, we identified the inclined actor (who are interested in the entertainment performance and actually went to the entertainment performance) and inclined abstainer (who are interested in the entertainment performance but did not go to the entertainment performance).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sample was more accurately classified when attitude and knowledge on K-entertainment we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Mor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provided.

■ keyword : | Entertainment Tourism | Tourism Contents | K-entertainment Performance | Behavior Intention Gap | Logistic Regression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699)

접수일자 : 2015년 09월 22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8일
교신저자 : 김진영, e-mail : jk293@khu.ac.kr

I. 서 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은 관광 매력물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이 높아져 한국의 K-pop은 2010년 초 유투브에서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영화가 흥행하면 촬영장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것과 같이 K-pop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1]. 관광에 있어 문화 경험은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로[2]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매력물의 경우 한국의 문화 경험을 상품화하게 되는데, 특히 한류를 관광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도 한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개최된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경우 6천5백 명의 관람객이 참관하였으며, 이들이 인천지역에서만 소비한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으로 총 14억 2천만 원의 지역 수요를 창출하였다[3].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관광 수요와 연결시켜 K-entertainment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에서 프랑스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4]. 한류 공연장의 추진에는 이러한 외국인 방문 수요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한류 공연 관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내국인들에 대한 공연관람 수요도 존재하지만, 한류 공연장 또는 K-Pop 공연장이라는 명칭에서 '한류' 및 'K-Pop'은 외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연장은 외래 방문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관광지 개발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개발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실행은 재무적 가치 예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데, 일단 수요와 판매를 예측하면 투자와 비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 추정은 많은 예측 불허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여행, 엔터테인먼트, 문화 활동 등의 즐거움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hedonic consumption)에 있어 소비자는 높은 의향을 표시하게 되나, 이렇게 표시된 의도가 언제나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2012년 실시한 '서울시민 여가, 문화생활 현황'에 따르면 희망 여가 활동에서 '여행'이 1위로 꼽혔으나, 실제 참여한 여가활동은 'TV시청'이 1위로 나타났다[5].

그렇다면, K-pop 공연장 개발에 있어 관건은 한류의 글로벌 확산이 한국 방문 및 공연 관람 의도로 이어지고 이러한 의도가 실제 공연 관람으로 실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행동을 예측한다는 이론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희망 여가 활동 및 실제 여가 활동의 차이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행동의 경우 의도와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한 널리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운동 또는 금연 등에서 소비자들이 강한 의도를 보이더라도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지식, 능력, 주변의 협조 등이 의도를 행동으로 실행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되어왔다[6].

이러한 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면 수요 예측에 있어 과대평가를 야기할 수 있다. 한류 공연 관람의 맥락에서도 의도와 행동 간 불일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 연구[7]에서는 외래 관광객을 공연 관람군, 공연 관람에 관심은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은 잠재군, 그리고 무관심군으로 분류하여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한류 공연 관람과 관련된 지식, 능력, 협조 요인 등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를 밝힌 이 연구로는 변수들이 실제 관람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불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연 관광의 맥락에서 보다 넓은 표본을 확보하여 의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공연 관람 의도가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관람군(실제로 관람한 사람)과 잠재군(실제로 관람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에 따라 각 집단이 얼마나 정분류 되는지 검증하여, 관람의도를 실행하는 촉진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문헌연구 및 연구가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라고 상정하고, 이러한 행동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보았다[8-10]. 이러한 계획행동이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검증되어 왔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기 보다는 행동의도 예측을 통해 실제적인 행동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동기[11][12], 계획[13-15], 기술적 규범[16], 자기효능감[15][17]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특정 행동에 있어서는 행동 의도와 행동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6], 이러한 의도-행동 간의 차이는 금연이나 운동과 같은 건강 관련 행동[13][15-17]이나 기부[18]와 같은 윤리적 행동 등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관광부문의 연구에서는 2012 여수 엑스포 참관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약 50%만이 실제로 참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9]. 엑스포 참관 의도가 클수록 실제로 참가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은 검증되었으나, 이 연구는 인구통계적 요인 외에 의도-행동 간의 차이를 줄이는 여타 요인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Sheeran[6]은 의도가 행동으로 연계되는 정도는 지식, 능력, 협조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부행동에 대한 실험[18]에서 기부 의사는 높았으나 실제 기부의 실천은 사전에 조사된 의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에 대한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실행을 예측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부를 하려면 자선 단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를 공연관광에 적용하면, K-entertainment 공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능력을 갖출수록 실제 공연 관람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래 관광객의 공연 관람 의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계획 행동이론에 [8]에서 제시한 의도 요인과 Sheeran[6]이 제시한 의도와 행동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에 대하여 다음의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계획행동 이론에 따라 행동 의도는 행동 실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며[8-10],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방문 시 공연 관람에 대한 사전적 행동 의도 요인,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실제 공연 관람군을 파악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H1. 외래 관광객의 K-entertainment 공연관람에 대한 의도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은 관람 행동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Sheeran[6]이 의도-행동 차이 이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행동 의도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능력, 또는 경제적 자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연 관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한국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고 하는 의도가 실제 공연 관람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연 및 공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공연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 방법, 경제적 능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H2-1. 외래 관광객의 K-entertainment 공연 관람에 대한 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은 관람 행동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외래 관광객의 K-entertainment 공연 관람에 대한 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은 의도와 행동 간의 오(誤)분류를 감소시킬 것이다.

III. 연구 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2015년 3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방한 외래객의 주요 국적 및 언어를 고려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가지 언어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한 후, 각 언어별 원어민이 번역하고, 다시 다른 원어민이 재검토 하였으며, 수정된 설문지는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언어 간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충실한 설문 작성을 위하여 설문 응답자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일반 관광지에서 설문이 이루어진 선행연구[7]에서 실제 공연 관람군은 23.4%의 소수로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연 관람층과 잠재군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내 일반 관광지 뿐 아니라 실제 공연장 인근에서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항목은 행동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의 경우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공연 관광 맥락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의도와 행동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인 지식과 능력의 경우 [6]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표 1]에 요약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표본 특성

분석에는 K-entertainment 공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268개 설문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공연 관람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관람군'은 141명(52.6%), 관심은 있으나 관람이 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응답한 '잠재군'은 127명(47.4%)였다. 성별은 여성(85.8%)이 남성(14.2%)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층은 20대가 63.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화권(49.3%), 일본(23.9%), 기타(13.7%), 미국/캐나다(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1. 설문 항목

요 인	측정항목	참고 문헌
태도 [ATT]	1.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은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비해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공연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공연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1], [22]. [23]
주관적 규범 [SN]	1.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번 한국 여행 중에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한국 방문 중에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가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3.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한국 방문 중에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가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4.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한국 방문 중에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갈 것을 추천하였다.	[20], [22]
지각된 행동 통제 [PBC]	1. 나는 한국에서 K-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가는데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 [24]
지식 [KNOW]	1. K-엔터테인먼트 연예인에 대해 알고 있다. 2. K-엔터테인먼트의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다. 3.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K-엔터테인먼트를 접했다. 4. K-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관련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
능력 [AB]	1.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안다. 2. 한국에서 열리는 K-엔터테인먼트 공연 티켓을 구입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한국의 콘서트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4. 나는 한국의 콘서트 시설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6]
경제적 자원 [FR]	1. 나는 한국에서 K-엔터테인먼트 공연에 갈 경제적 여유가 있다. 2. 한국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3. 한국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공연 관람은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6]

표 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명	유효%	구 분		명	유효%
성별	남자	38	14.2	관람 여부	관람군	141	52.6
	여자	230	85.8		잠재군	127	47.4
연령	20-29	170	63.4	직업	학생	96	35.8
	30-39	58	21.6		회사원	100	37.3
	40-49	31	11.6		기타	72	26.9
	50세 이상	9	3.4	국적	중국/대만	132	49.3
언어	일본어	64	23.9		일본	64	23.9
	중국어	132	49.3		미국/캐나다	35	13.1
	영어	72	26.8		기타	37	13.7

표 3.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4	요인5	요인6	신뢰계수
ATT1	.749						.921
ATT2	.806						
ATT3	.843						
ATT4	.802						
SN1			.707				.901
SN2			.841				
SN3			.837				
SN4			.828				
PBC1					.863		-
PBC2					.870		
KNOW1				.809			.903
KNOW2				.805			
KNOW3				.786			
KNOW4				.803			
AB1		.776					.916
AB2		.844					
AB3		.810					
AB4		.809					
FR1						.879	-
FR2						.613	
고유값	9.434	1.979	1.547	1.323	1.140	.838	
분산(%)	17.13	16.43	16.07	15.90	8.87	6.91	
누적(%)	17.13	33.56	49.63	65.53	74.40	81.31	
KMO : .899 Bartlett 구형성 검정: 4080.180 (p:.000)							

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와 경제적 자원에서 각각 1개의 항목이 내적 일관성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신뢰 계수가 0.7 이하인 항목과 고유값이 1 이하인 요인이 나타났으나 신뢰도가 확보되고 고유값이 0.8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태도, 사회적 규범, 지식, 능력은 각각 4개, 지각된 행동통제와 경제적 지원은 각각 2개의 측정항목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가설 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으로, 판별분석에 비해 변수의 분포에 대한 제약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외래 관광객의 K-entertainment 공연 관람 의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종속변수(0=잠재군, 1=관람군)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의도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모형1)과 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모형2)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로 의도 요인 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추가 변수(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를 위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변수들만 선별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진입시키는 전진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의도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을 통제할 경우에도 공연 관람에 대한 지식, 능력, 경제적 자원이 관람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의도와 행동 간의 오(誤)분류를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결측치 제외한 254개(잠재군 120, 관람군 134)의 관측치가 사용되었으며, 분석 결과 요약은 [표 4]와 같다.

3.1 모형의 적합도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 Log 우도(-2LL)는 그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은데, 의도 요인과 추가 변수를 각각 투입했던 모형1과 모형2에 비해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3의 적합도가 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계수는 독립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의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한 것으로, 모든 모형에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p=.000)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일치되는 정도를 나타냄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보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경우 적합도가 수용할 수준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모형의 검정 수준이 비유의 하여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도 요인만 투입한 모형1에 비해 의도 요인에 추가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의 카이제곱 값이 더 작게 나타나 투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합도가 높아졌다.

3.2 가설 검증

모형1에서는 태도가, 모형 2에서는 지식이 잠재군과 관람군을 분류하는데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능력 또한 양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유의성은 근소하게 10%를 넘었다. 태도와 지식은 모두 양의 계수 부호를 나타내어 태도와 지식이 클수록 관람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태도의 경우 1단위 증가함에 따라 관람 행동을 보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하여 2.071배, 지식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1.759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1과 H2는 모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4. 분석 결과

모형	요인	계수(B)	S.E.	Wald	유의확률	Exp(B)
1	**ATT**	**.728**	**.142**	**26.359**	**.000**	**2.071**
	SN	.054	.120	.203	.652	1.056
	PBC	.001	.093	.000	.988	1.001
	상수항	-4.070	.713	32.624	.000	.017
	-2LL=308.685 모형계수: x^2=51.197 p=.000 Hosmer & Lemeshow 검정: x^2=9.023 p=.340 **분류정확도: 73.5%**					
2	**KNOW**	**.565**	**.109**	**26.620**	**.000**	**1.759**
	AB	.180	.111	2.637	.104	1.197
	FR	-.058	.121	.231	.631	.944
	상수항	-2.870	.583	24.241	.000	.057
	-2LL=301.289 모형계수: x^2=57.108 p=.000 Hosmer & Lemeshow 검정: x^2=7.447 p=.489 분류정확도: 72.6%					
3	**ATT**	**.504**	**.141**	**12.769**	**.000**	**1.655**
	KNOW	**.462**	**.110**	**17.579**	**.000**	**1.588**
	상수항	-4.614	.756	37.254	.000	.010
	-2LL=282.296 모형계수: x^2=69.051 p=.000 Hosmer & Lemeshow 검정: x^2=8.229p=.411 **분류정확도: 74.4%**					

한편 모형 3을 살펴보면, 의도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추가 변수 중 지식은 관람군을 분류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 요인만 투입한 모형1에 비해 의도 요인에 추가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3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73.5%에서 74.4%로 다소 증가하여 외래 관광객의 K-entertainment 공연 관람에 대한 지식은 의도와 행동 간의 오(誤)분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태도와 지식이 각각 1단위 증가함에 따라 관람 행동을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각각 1.655배, 1.58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태도와 지식 요인이 잠재군과 관람군을 분류하는데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H1과 H2 모두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H3도 모형 3(74.4%)의 분류 정확도가 모형 1(73.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공연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공연 관광에 있어 의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관람군과 잠재군으로 분류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태도와 지식 요인이 공연 관람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도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의도를 나타낸 소비자들의 이질적인 행동 실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광지나 공연장 개발에 있어서도 수요 예측 시 의도와 행동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대 평가된 수요는 최적 수용력 이상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공연장과

같이 초기 투자 및 고정비용이 큰 경우, 공급과잉은 경제적으로 유동성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계획행동이론에서 의도를 구성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가운데 태도만이 공연 관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변수를 투입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특정 대중문화 장르 또는 아티스트의 선호에 있어서 개인의 개별적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태도항목은 일반적인 K-엔터테인먼트 공연 관람이 아닌 "한국"에서의 K-엔터테인먼트 공연을 특정하고 있다. 한류의 소비 채널이 다양한 만큼 한국에서의 한류 공연이 차별적인 위상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태도와 함께 지식 요인이 관람군으로 분류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류 관련 연예인, 트렌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활동 참여 등의 지식이 많을수록 관람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한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해외 홍보가 공연 관광에 있어서도 밑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연 관광 홍보 활동에 있어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공연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한류에 대한 정보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공연 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관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한류 공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고 한류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인이 파악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태도와 지식을 제외한 경제적 자원 등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점은 한류 공연을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써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과제를 동시에 의미한다. 외래 관광객들의 공연 관광 참여 여부는 지식이나 태도에 비해 주변의 의견이나 경제적 환경에 의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외래 관광객이 한류 공연 관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한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받는다면 공연 관광에 참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요소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공연 관람군이 상당수 포함된 본 연구에서 관람 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연정보, 예매, 교통편, 연계 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시스템, 앱의 개발 등 관광 인프라의 개선 또한 공연관광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공연 콘텐츠가 관광산업에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김주연, 안경모,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선호가 한국상품 구매, 한국방문 및 한글학습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447-458, 2012.

[2] G. M. Dann, "Tourist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8, No.2, pp.187-219, 1981.

[3] 유창근, "인천한류관광콘서트 방문객의 소비지출 패턴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399-410, 2012.

[4]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한류팬 10명중 9명 한국 여행 가고 싶어요, 보도자료 2012. 4. 3.

[5]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여가 문화 생활 2012 서울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2013.

[6] P. Sheeran,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12. No.1 pp.1-36, 2002.

[7] 이민재, 김진영, 서원석, "외래 관광객의 한류 공연 관람의도와 행동 간 불일치 요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05-113, 2015.

[8]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9]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10] I. Ajzen and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Prentice-Hall, 1980.

[11] C. H. C. Hsu and S. Huang,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for Tourists," J.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36, No.3, pp.390-417, 2012.

[12] 윤설민, 신창열, 이충기,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학연구, 제38권, 제5호, pp.253-276, 2014.

[13] P. Norman and M. Conn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Evidence for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Planning on Intention-Behavior Relationships," J. of Sport & Exercise Psyhology, Vol.27, pp.488-504, 2005.

[14] 이형권,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계획의 영향 -관광행동의 예측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제37권, 제5호, pp.135-156, 2013.

[15] F. F. Sniehotta, S. Urte, and S. Ralf, "Bridging the Intention-behaviour Gap: Planning, Self-Efficacy, and Action Control in the Adoption and Maintenance of Physical Exercise," Psychology & Health, Vol.20, No.2, pp.143-160, 2005.

[16] 이형권, 송성섭,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와 행동 차이를 연결해주는 운동감정반응의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제6호, pp.1377-1392, 2011.

[17] E. R. Ryan and C. P. Ronald, "Predicting the Physical Activity Intention-Behavior Profiles of Adopters and Maintainers Using Three Social Cognition Models," Annual Behavioral Medicine, Vol.36, pp.244-252, 2008.

[18] N. Epley and D. Dunning, "Feeling Holier than Thou: Are Self-serving Assessments Produced by Errors in Self-or Social Predic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9, No.6, pp.861-875, 2000.

[19] C. Lee, J. W. Mjelde, T. Kim, and H. Lee, "Estimating the Intention-behavior Gap Associated with a Mega Event: The Case of the Expo 2012 Yeosu Korea," Tourism Management, Vol.41, pp.168-177, 2014.

[20] T. Lam and C. H. C. Hsu,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28, No.4, pp.463-482, 2004.

[21] C. J. Armitage, "Ca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edict the Maintenance of Physical Activity?," Health Psychology, Vol.24, No.3, p.235, 2005.

[22] C. Mohiyeddini, R. Pauli, and S. Bauer, "The Role of Emotion in Bridging the Intention-behaviour Gap: The Case of Sports Particip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10, No.2, pp.226-234, 2009.

[23] B. J. Pine and J. H. Gilmore,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Vol.76, pp.97-105, 1998.

[24] A. Notani, Moderator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Predictivenes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sis, J. of Consumer Psychology, Vol.7, No.3, pp,247-271, 1998.

저 자 소 개

이 민 재(Min-Jae Lee) 정회원

- 199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8년 12월 : 라스베가스네바다 주립대학교 호텔경영학과(호텔경영학사)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컨벤션경영학과(관광학 석사)
- 2010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영전공(경영학 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8월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객원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문화관광, 국제경쟁력, 카지노

김 진 영(Jin-Young Kim) 정회원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학사)
- 2000년 8월 : 카디프대학교 국제경제 재무관리(석사)
- 2011년 8월 : 코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재무관리, 호텔산업, 관광콘텐츠